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논술(AAT)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고 교 명	고등학교	⑩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고교명,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3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 기록에 따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하면서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 명과 함께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에 내려와 이를 신시라 일렀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삼백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매마침 꿈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한 굴에서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신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꿈과 범은 쑥과 마늘을 얻어먹었다. ㉠삼칠일 동안 몸을 삼가지 꿈은 여자의 몸이 되었고, 범은 그렇지 못했다. 웅녀는 주변에 자기와 혼인할 자가 없었으므로 신단수 밑에서 혼인할 상대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소원을 빌었다. 환웅은 웅녀의 입장을 이해했고 그 소원에 어떻게 화답할지 고민했다. ㉡환웅은 웅녀의 처지를 배려하여 스스로 인간으로 변했다. 환웅과 웅녀는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다.

* 천부인(天符印): 신의 위력과 영험을 표상하는 부적과 도장.

(나) 시어머니 손에 잡혀 나오면서도

영문을 몰랐던 며느리는
서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시집은 지 겨우 한 달
한국어는 말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베트남어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앞장섰다.

㉢각종 외국어 사전이 꽂힌 서가 앞에서

베트남어 한국어 사전을 뽑아 든
며느리는 빠르게 책갈피를 넘기고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을 뽑아 든
시어머니는 천천히 책갈피를 넘겼다.

사전 한 권씩 들고 집에 돌아온 고부는
그때부터 편해지고 마음 놓이는데
굳이 사전을 뒤적여 찾지 않아도
한국말과 베트남말로
제각각 한마디씩 해도 살림할 수 있었다.

1. (가)는 고조선의 「단군 건국 이야기」로, 이주집단인 환웅 부족과 토착집단인 웅녀 부족의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결합을 다룬 이야기이다. (나)는 하종오의 「사전」으로, 한국인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시이다. 밑줄 친 ㉠, ㉡, ㉢, ㉣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문화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서술하십시오. (100자 이내) (60점)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철수 시장은 어제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박영길 시의원을 맹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길이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살충제가 지역 조류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박영길 자신이 살충제회사의 사장이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김보도 기자는 곧바로 박영길을 만났다. 박영길은 김철수의 성명서는 하등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고 배후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김보도는 김철수의 주장과 박영길의 주장을 함께 담아 기사를 작성했다. 김보도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편집장은 김보도의 기사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는 오늘자 조간 신문에 실렸다.

김철수는 김보도가 자신의 주장과 박영길의 주장을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언론의 책무는 공적 토론을 위한 공정한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판단은 언론이 아니라 독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영길은 보도가 나가자 격노했다. 박영길은 신문에 전화를 걸어 김보도의 기사는 김철수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박영길은 자신이 조류에 미치는 살충제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거짓 말을 해본 적도 살충제회사의 사장이었던 적도 없다고 말했다.

2. 김철수와 박영길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요약하십시오. (110자 이내) (60점)

[3]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살방조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방조는 처벌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갑)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죠.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지위질 수 없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자살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고, 그런 행위를 돕는 자살방조 역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운운하지만 그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각자가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죽는 것 역시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을) 하지만 자연사도 주변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자살을 기도할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자에게 당신은 죽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살방조를 처벌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자살방조의 처벌 규정은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일 뿐, 자살방조가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당위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이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극단적인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여 사회·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방조의 처벌은 자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따라서 국가의 의무에 속합니다.

3-1. 밑줄 친 갑의 주장은 (ㄱ)과 같은 삼단논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ㄴ)의 삼단논법 예시를 참조하여 (ㄱ)의 대전제를 서술하시오. (20점)

(ㄱ)

대전제 : _____ (50자 이내)

소전제 :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결론 : 자살은 금지되어야 한다.

(ㄴ)

대전제 : 타인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는 널리 칭찬받아 마땅하다.

소전제 :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결론 :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는 것은 널리 칭찬받아 마땅하다.

3-2.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채우시오.

을과 병은 자살방조의 처벌이 (ㄱ) _____ (15자 이내) _____ 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같지만, (ㄴ) _____ (35자 이내) _____ 와(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ㄱ) _____ (25점)

(ㄴ) _____ (25점)

[4] 다음 상황에 대해 (갑)과 (을)이 나눈 <보기>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씨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파손하여 차주인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보통의 차량이었다면 1천만 원 정도의 손해로 판정될 정도의 부주의였지만 B씨의 차가 워낙 고가의 자동차이고 국내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험사가 내린 손해 판정액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액은 1억 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5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기>

(갑) B씨의 자동차가 고가의 외제차가 아니었다면 A씨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B씨가 값비싼 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A씨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값비싼 차를 선택한 B씨도 추가적인 부담의 일부를 떠안아야 한다.

(을) 만약 A씨가 동일한 정도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비싼 자동차 여러 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한 대에 손해를 입힌 경우보다 A씨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A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갑)과 (을)은 A씨가 져야 할 책임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 속에 들어갈 (을)의 견해를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60점)

(갑) A씨가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는 그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에 달린 것이지, 그의 부주의가 초래한 손해의 크기에 달린 것은 아니다.

(을) A씨가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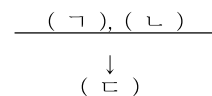
[5]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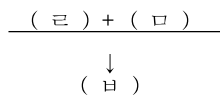
(가) 추론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정신적 과정이다. 추론은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함류추론과 결합추론으로 구분된다.

함류추론은 전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는 추론으로서 하나의 전제만으로도 결론을 주장할 수 있다. 결합추론은 제시된 전제들이 반드시 함께 결합해야만 결론을 제공하는 추론이다.

함류추론의 예를 들면, (ㄱ)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없으며,” 또한 (ㄴ) “사형제도 외에 범죄율을 낮추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 (ㄷ) “따라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결합추론의 예를 들면, (ㄹ)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우리는 소풍을 간다.” (ㅁ) “만약 내일 소풍을 가면, 우리는 즐거울 것이다.” (ㅂ) “따라서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우리는 즐거울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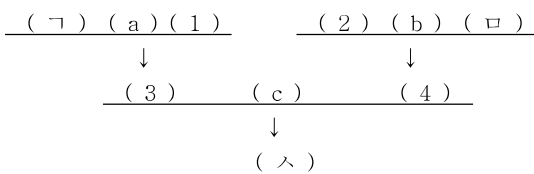


↓는 밑줄 위의 문장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하며, ‘,’는 함류를, ‘+’는 결합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나)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ㄱ) “결석은 학생으로서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며,” (ㄴ) “또한 결석을 하게 되면 수업 내용을 놓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므로,” (ㄷ)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민식이는 (ㄹ) “친구인 지현, 민지, 지수가 안경을 끼고 있고,” (ㅁ) “이들이 모두 성적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민식이는 (ㅂ) “안경을 끼면 성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여 (ㅅ)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석을 하지 말고 안경을 끼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문 (가)의 설명을 토대로 지문 (나)에서 민식이 가 행한 추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고자 한다.



5-1. **괄호 (a), (b), (c) 안에** 결합기호인 ‘.’와 합류기호인 ‘+’ 중 하나를 골라 쓰시오. (20점)

(a): () (b): () (c): ()

5-2. **괄호 (1), (2), (3), (4) 안에** 지문 (나)의 (ㄴ), (ㄷ), (ㄹ), (ㅁ)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시오. (20점)

(1): () (2): () (3): () (4): ()

5-3. 민식이의 추론 과정 중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십시오. (150자 이내) (40점)

[6]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그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중략)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그냥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중략)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아저씨: 출제자 주)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듯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6-1. (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나', '안', '아저씨(사내, 양반)'이다. 이들의 설명을 감춘 이유는 익명성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절된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설정이다. 이외에도 본문 중 표현에서 '(1)익명성'과 '(2)소통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을 각각 찾아 쓰시오.

(1) (35자 이내) (20점)

(2) (15자 이내) (10점)

6-2. (가)의 줄친 부분에 드러난 '나'와 '안'의 행위에 대해 (나)의 시적 화자('나')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십시오. (200자 이내) (40점)